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달걀 껍데기에 있는 번호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청중의 반응을 살피고) 네, 눈여겨보지 않으면 잘 모를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달걀이라면 모두 난각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난각 코드는 달걀 껍데기에 표시된 숫자와 알파벳 조합을 말합니다. (㉠ 자료를 제시하며) 난각 코드에는 달걀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 있는데요, 먼저 가장 앞에 나오는 이 네 자리의 숫자는 닭의 산란 일자입니다. 신선한 달걀을 사기 위해서는 이 산란 일자를 꼭 확인해야겠죠? 다음으로 알파벳과 숫자로 이루어진 다섯 자리의 생산자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이 고유 번호가 있으면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달걀을 생산한 농장 이름과 소재지 등의 정보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자리의 숫자는 닭의 사육 환경 번호입니다.

(㉡ 자료를 제시하며) 사육 환경 1번은 방사, 2번은 평사입니다. 방사는 방목장에 닭을 풀어 놓고 키우는 것이고, 평사는 축사 내 개방형 케이지를 포함하여 평평한 바닥에서 키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1번과 2번 사육 환경에서 생산한 달걀을 ‘동물 복지 인증 달걀’이라고 합니다. (㉢ 자료를 제시하며) 3번과 4번은 케이지에 가두어 사육하는 환경을 말하는데, 4번은 기존 케이지, 3번은 개선 케이지입니다. 기존 케이지의 닭 한 마리당 사육 면적은 0.05m²로 이는 (A4 용지를 보여 주며) A4 용지 한 장보다도 좁은 공간입니다. 사육 면적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개선 케이지도 좁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사육되는 닭들은 질병에 취약하고, 스트레스 호르몬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달걀을 낳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달걀의 95%가 사육 환경 3, 4번 달걀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닭들의 열악한 사육 환경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난각 코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하며) 앞으로 달걀을 살 때 난각 코드를 확인하여 신선하고 질 좋은 달걀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발표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하여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
 - 준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청중에게 바라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 발표 대상을 친숙한 소재에 빗대어 표현하여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발표 내용과 관련된 통계의 출처를 제시하여 청중에게 신뢰감을 주고 있다.
 - 구체적인 수치를 가늠할 수 있는 대상을 보여 주며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2. 다음은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발표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료 1]	[자료 2]	[자료 3]

- 난각 코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보여 주기 위해 ㉠에 [자료 1]을 사용하였다.
 - 달걀 껍데기에 난각 코드가 표시되어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해 ㉠에 [자료 1]을 사용하였다.
 -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나오는 농장의 정보를 보여 주기 위해 ㉡에 [자료 1]을 사용하였다.
 - 동물 복지 인증 달걀이 생산되는 사육 환경을 보여 주기 위해 ㉢에 [자료 2]를 사용하였다.
 - 기존 케이지와 개선 케이지의 닭 한 마리당 사육 면적을 보여 주기 위해 ㉢에 [자료 3]을 사용하였다.
3. 학생의 발표를 바탕으로 할 때, [A]에 들어갈 청중의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발표 후 질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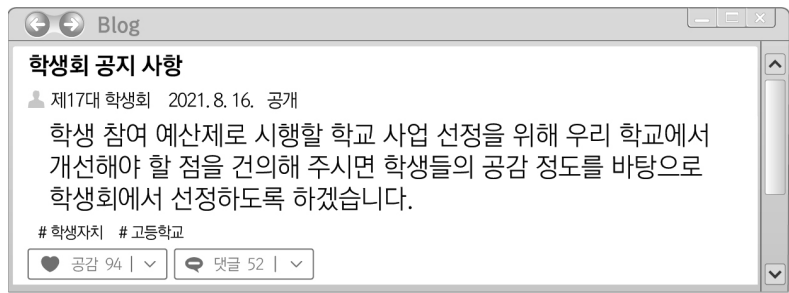
청 중 :

발표자: 닭들도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고 우리도 질 좋은 달걀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닭들의 사육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달걀을 살 때 산란 일자를 확인하자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좁은 공간에서 사육되는 닭들은 질병에 취약하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달걀은 모두 난각 코드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달걀의 95%가 사육 환경 3, 4번 달걀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4~7] (가)는 학생회 블로그에 올라온 '공지 사항'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교실에서 동아리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며, (다)는 학생들이 작성한 건의문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

학생 1: 어제 학생회 블로그에 올라온 공지 사항 봤어?
 학생 2: 응. 학생 참여 예산제로 운영할 사업에 대해 건의를 받는다고 하더라.
 학생 3: 나도 봤어. 그런데 학생 참여 예산제가 뭐야? [A]
 학생 1: 학생 참여 예산제는 학생회가 주체가 되어 학생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실현하고자 스스로 기획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제도야.
 학생 3: 아, 우리가 스스로 학교 사업을 제안하는 거네. 우리 제안이 실현되면 엄청 뿌듯하겠단. 한번 참여해 보자.
 학생 2: 좋아. 그리고 우리 제안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학교 사업에 대해 고민해 보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을 것 같아. 너희는 우리 학교의 어떤 점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어?
 학생 1: 나는 정수기 옆에 종이컵을 놔 줬으면 좋겠어. 매번 컵을 들고 다니기가 너무 불편해.
 학생 3: 편하긴 할 텐데 쓰레기도 너무 많이 생기고 환경 호르몬 때문에 건강에도 안 좋을 것 같아. [B]
 학생 2: 조금 귀찮고 불편해도 개인 컵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동아리의 성격을 살려서 학교 공간에 대해 건의하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
 학생 1: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네. 어디를 개선하면 좋을까?
 학생 3: 지난번에 학교 공간에 대해 설문 조사 했잖아. 그때 면학실 개선에 대한 의견이 많았었어. 나도 삼면이 딱 막힌 1인용 책상으로만 되어 있어서 답답하게 느껴지더라고.
 학생 2: 맞아. 평소에 인터넷 강의도 듣고 검색도 해야 하는데 와이파이가 없어서 불편했거든.
 학생 3: 그래. 그래서 나는 요즘 돈 내고 카페에 간다니까.
 학생 1: 나도 가끔 모둠 과제 할 때 카페에 가는데 은근히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
 학생 2: 하긴 '카공족'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긴 거 보면 요즘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나 봐. 그런데 카페에서 공부하는 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
 학생 3: 텔레비전에서 어느 과학자가 카페는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경계여서 집중력이 올라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커피하우스 이펙트' 이론을 소개한 걸 본 적 있어.
 학생 2: (손뼉을 치며) 아, 그런 이론이 있구나. 그럼 우리 면학실을 카페처럼 개선해 달라고 건의해 보자.
 학생 1: 좋아. 그럼 지금까지 나온 면학실의 문제점은 다양한 형태의 책상 구비와 와이파이 설치로 해결될 수 있겠다.
 학생 3: 나는 운영 방식도 바뀌었으면 좋겠어. 학기 초에 신청한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고 선생님들께서 감독하시니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해서 불편해.

학생 2: 그런데 운영 방식 개선은 현안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학생 3: 난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카페 공간으로의 변화는 운영 방식이 함께 변할 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
 학생 2: 음, 기존의 면학실 형태나 운영 방식을 원하는 학생들도 있지 않을까?
 학생 1: 학년별로 면학실이 있으니까 한 곳만 카페처럼 만들고 나머지는 그대로 운영하면 되지. 그리고 카페 같은 따뜻한 느낌도 나면 좋겠어.
 학생 2: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학생 1: 좋아. 그러면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건의해 보자.

(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간을 연구하는 동아리 '있다'입니다. 학생 참여 예산제 사업으로 학교의 면학실을 카페처럼 개선해 주기를 건의합니다.
 '카공족'을 들어 보셨나요? '카공족'은 카페에서 공부하는 문화를 드러내는 신조어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학교 면학실보다 카페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에게는 부담스러운 이용 금액입니다. 그리고 저희 동아리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공간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면학실 개선에 대한 요구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면학실을 개선해 주기를 바랍니다. 첫째, 모둠이나 짝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책상을 구비하고 둘째, 인터넷 강의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환경도 갖추어 주기를 바랍니다. 셋째, 카페 같은 따뜻한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조명을 설치해 주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주변의 ○○고등학교처럼 학생회 중심으로 이용 규칙을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기존의 책상과 운영 방식을 선호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기존의 다른 면학실도 함께 운영하기를 제안합니다.
 면학실을 개선하면 학생들의 다양성을 존중해 주는 학교 문화를 형성할 수 있으며, 집중력이 올라가므로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하면 하트 눌러 주세요.
 2021년 9월 1일
 공간 연구 동아리 '있다'

4. (가)와 (나)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필자와 (나)의 화자는 모두 공적인 상황에 맞는 정중하고 격식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② (가)와 (나)의 의사소통 참여자들은 모두 개인적 차원의 의사소통을 통해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 ③ (가)와 (나)의 의사소통 참여자들은 모두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합의에 이르기 위한 대안을 조정하고 있다.
- ④ (가)의 필자는 (나)의 화자와 달리 의사소통 수단의 양방향적인 특징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반응을 요구하고 있다.
- ⑤ (나)는 (가)와 달리 의사소통 참여자들이 시간과 공간을 모두 공유하는 상황이므로 언어적 표현 외에 비언어적 표현도 함께 사용하여 의사소통하고 있다.

5. [A]와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학생 2’는 ‘학생 1’의 발화 내용을 요약하며 자신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② [A]에서 ‘학생 3’은 ‘학생 2’와 공유하고 있는 정보에서 생소한 용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 ③ [B]에서 ‘학생 3’은 ‘학생 1’의 발화에 대해 일부 동의하며 기대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 ④ [B]에서 ‘학생 2’는 ‘학생 1’이 제시한 의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상대방에게 해결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 ⑤ [A]와 [B] 모두에서 ‘학생 2’는 질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의견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있다.

6. (나)를 바탕으로 세운 글쓰기 계획 중, (다)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나)에서 카페라는 공간적 특성이 가지는 효과에 대해 언급한 것을 반영하여 면학실 개선의 기대 효과를 나타내야겠어.
- ② (나)에서 최근 ‘카공족’이 많아진 현상에 대해 언급한 것을 반영하여 질문을 통해 현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해야겠어.
- ③ (나)에서 학생 참여 예산제 공모에 참여하는 의도를 반영하여 건의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얻은 긍정적인 변화를 드러내야겠어.
- ④ (나)에서 카페를 이용할 때 비용이 많이 든다고 언급한 것을 반영하여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면학실 개선의 이유로 제시해야겠어.
- ⑤ (나)에서 획일적인 형태의 책상이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의 책상을 구비해야 한다는 것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해야겠어.

7. 다음은 선생님의 모둠 활동 안내이다. 이에 따라 (다)를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 오늘은 학생회 블로그에 올라온 건의문을 평가해 볼게요. 건의문에 제시된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해요. 다음의 요건에 따라 평가해 봅시다.

- ㉠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가?
- ㉡ 주장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공평한가?
- ㉢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인가?
- ㉣ 주장이나 근거가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는가?

- ① ㉠을 고려할 때,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 ② ㉡을 고려할 때, 기존의 면학실 형태를 선호하는 학생들의 입장을 참작하여 기존 면학실을 유지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고 있어.
- ③ ㉢을 고려할 때, 예산 규모에 따라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어.
- ④ ㉣을 고려할 때, 학생회 중심의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다른 학교 사례를 제시하고 있어.
- ⑤ ㉣을 고려할 때, 따뜻한 카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 근거로 기존의 면학실 분위기가 지닌 다양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어.

[8~10] (가)는 작문 과제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쓴 학생의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가) 작문 과제**
- 글의 목적: ‘재사용’에 대한 정보 전달
 - 주제: ‘재사용’의 개념과 실천 방법
 - 예상 독자: ‘재사용’이 생소한 우리 학교 학생

(나) 학생의 글

우리는 일회용 사회에 살고 있다. 일회용품 쓰레기 문제로 인해 우리 사회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재사용의 비율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재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의 교훈을 떠올리며 쓰레기 배출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재사용에 대해 알아보자.

재활용은 폐품 따위를 가공하여 다시 활용하는 것이지만, 재사용은 물건이나 부품을 원형 그대로 다시 사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다 쓴 페트병을 가공해 건축 자재 등으로 쓰는 것은 재활용이지만, 플라스틱 용기를 세척하고 소독하여 내용물을 담아 다시 사용하는 것은 재사용이다. 가공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물건을 그대로 다시 사용한다는 점에서 재사용은 그 가치를 더욱 인정받고 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재사용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리필 스테이션을 이용하는 것이 있다. 리필 스테이션은 화장품, 세제, 샴푸 등과 같은 제품을 다 사용한 후 그 용기를 되가져가 내용물만 담아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이곳

을 이용하면 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으므로 쓰레기의 배출을 줄일 수 있다. 이밖에도 재사용 빨대, 재사용 배달 그릇 사용 등 우리 주변에서 재사용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일회용품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재사용은 재활용과 달리 가공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물건을 그대로 [A]로 다시 사용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리필 스테이션 등 생활 속에서 재사용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쓰레기가 될 뻔한 자원에 새 숨을 불어넣을 수 있다.

8. (나)에 활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활용한다.
- ② 제재의 시의성을 드러내기 위해 관용적 표현을 활용한다.
- ③ 제재와 관련된 내용의 전달을 위해 자신의 경험을 활용한다.
- ④ 제재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대상의 효용적 측면을 제시한다.
- ⑤ 제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개념 간의 차이를 설명한다.

9. <보기>는 (나)의 ‘학생의 글’을 보완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ㄱ. 연구 자료

빈 병 재사용률은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한국은 85%에 그친다. 현재 수준에서 빈 병 재사용률을 독일 수준으로 올리면 약 15,000명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ㄴ. 전문가 인터뷰

“리필 스테이션에서 섬유 유연제를 구입하면 가격이 일반 제품에 비해 약 35% 저렴합니다. 환경부 추정치에 따르면 이러한 리필 스테이션은 9개점을 기준으로 연간 10톤의 플라스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국가	재사용률 (%)
한국	85%
독일	95%
핀란드	98.5%

ㄷ. 신문 기사

전국의 각 시도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해 폐기 시 해양 생태계 교란의 가능성이 있는 아이스 팩을 재사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구에서는 지금까지 아이스 팩 10만여 개를 수거하여 전통 시장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생활 쓰레기 54톤을 감량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 ① ㄱ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낮은 재사용 비율을 언급한 (나)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추가한다.
- ② ㄴ을 활용하여, 리필 스테이션의 장점을 다루고 있는 (나)의 내용에 제품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추가한다.
- ③ ㄷ을 활용하여, 일상 속 재사용 실천 방법을 제시한 (나)의 내용에 아이스 팩 재사용을 추가한다.

- ④ ㄱ과 ㄷ을 활용하여, 재사용의 가치를 언급한 (나)의 내용에 재사용은 에너지 절약과 환경 오염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 ⑤ ㄴ과 ㄷ을 활용하여, 쓰레기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나)의 내용에 재활용 시스템이 정비될수록 자원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10. <보기>는 [A]의 초고이다. <보기>를 [A]로 고쳐 쓸 때 반영한 친구의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이와 같은 실천 방법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빈 통을 세척하여 내용물을 채워 넣는 방법을 통해 쓰레기가 될 뻔한 자원에 새 숨을 불어넣어 일회용품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① 글의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추가적인 실천 방법을 써 보는 게 어때?
- ② 글의 주제가 강조되도록 글의 내용을 요약하여 써 보는 게 어때?
- ③ 글의 주제가 선명하게 기억될 수 있도록 태도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게 어때?
- ④ 예상 독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포함되도록 써 보는 게 어때?
- ⑤ 예상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서 써 보는 게 어때?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형태소는 일정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하며, 한 형태소는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여 단어나 구, 문장과 같은 상위 단위를 이룬다. 이때 형태소는 항상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환경에 따라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한 형태소가 환경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실현되는 것을 교체라고 한다. 특히 한국어는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 주는 조사와 어미가 발달해 있어서 형태소끼리의 결합 과정에서 다양한 교체 현상이 나타난다.

빛 : 빛이[비치], 빛도[빈또], 빛만[빈만], 쪽빛이[쪽삐치], 쪽빛도[쪽뽕또], 쪽빛만[쪽뽕만]

물 : 물이[무리], 물도[물도], 물만[물만], 국물이[궁무리], 국물도[궁물도], 국물만[궁물만]

‘빛’은 앞이나 뒤에 오는 형태소에 따라 6개의 서로 다른 형태로 실현된다. 이처럼 교체에 의해 달리 실현된 형태들을 이형태라고 한다. 교체가 일어난다는 것은 한 형태소가 최소한 둘 이상의 이형태를 가짐을 뜻한다. 이형태들은 나타나는 조건이나 환경이 겹치지 않는 상보적 분포를 지닌다. 한편 ‘물’은 앞이나 뒤에 어떠한 형태소가 오든지 항상 ‘[물]’로만 실현된다. 즉 교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교체를 통해 이형태가 복수로 존재할 경우에는 기본형을 정해 준다. 한 형태소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이형태들로 실현

되면 이형태들을 대표할 수 있는 형태를 하나 설정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본형이다. 교체를 하지 않는 형태소의 경우 그 자체가 기본형이 되지만 교체를 하는 형태소는 기본형을 따로 정해야만 한다.

또한 형태소의 교체는 일어나는 동기에 따라 자동적 교체와 비자동적 교체로 나눌 수 있다. ㉠ **자동적 교체**는 교체가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실현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교체를 말한다. 음절의 종성에 두 개의 자음이 발음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음운론적 제약이나 비음 앞에 평파열음인 ‘ㄱ, ㄷ, ㅂ’이 올 수 없다는 음운론적 제약 등으로 일어나는 교체가 자동적 교체이다. 예를 들면 ‘먹물→[명물]’에서 ‘먹’이 비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인 ‘물’과 결합할 때 ‘명’으로 교체를 보이는 경우이다.

다음으로 ㉡ **비자동적 교체**는 반드시 일어나야 할 필연적 이유가 없는 교체를 말한다. 즉 ‘감다→[감:따]’는 비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서 ‘-따’로 교체되는 경우로, 이는 비음 뒤에 ‘ㄱ, ㄷ, ㅂ’과 같은 자음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니다. 용언의 어간 말음이 비음으로 끝나고 뒤에 어미가 올 때에만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날 뿐, ‘단검→[단:검]’과 같이 다른 환경에서는 얼마든지 비음과 ‘ㄱ, ㄷ, ㅂ’ 등이 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 ㉠, ㉡에 해당하는 예끼리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 | | | |
|---|---------|--|---------|
| | ㉠ | | ㉡ |
| ① | 믿는[민는] | | 안고[안:꼬] |
| ② | 삶도[삼:도] | | 김장[김장] |
| ③ | 입은[이븐] | | 넘다[넘:따] |
| ④ | 밥만[밤만] | | 앉는[안는] |
| ⑤ | 닭이[달기] | | 삼고[삼:꼬] |

12.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닭 : 닭이[달기], 닭도[닥또], 닭만[당만], 통닭은[통달근]
 ㉡ 책 : 책이[채기], 책도[채또], 책만[챙만], 공책은[공채근]
 ㉢ 밥 : 밥이[바비], 밥도[밥또], 밥만[밤만], 찬밥은[찬바븐]
 ㉣ 달 : 달이[다리], 달도[달도], 달만[달만], 반달은[반:다른]
 ㉤ 잎 : 잎이[이피], 잎도[입또], 잎만[임만], 솔잎은[솔리픈]

- ① ㉠ : ‘닭’의 이형태들은 상보적 분포를 보이는군.
- ② ㉡ : ‘책’은 기본형을 따로 정할 필요 없이 그 자체로 기본형이 되겠군.
- ③ ㉢ : ‘밥’이 이형태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 교체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 : ‘달’은 앞이나 뒤에 어떠한 형태소가 오더라도 하나의 형태로만 나타나는군.
- ⑤ ㉤ : ‘잎’은 환경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므로 이형태들을 대표할 수 있는 기본형을 설정하겠군.

13. <보기>의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학생 : 선생님, 피동 표현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선생님 : 피동 표현은 행위의 주체보다 대상을 부각하고 싶을 때, 행위의 주체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자 할 때, 행위의 주체가 중요하지 않거나 누구나 아는 사람이어서 말할 필요가 없을 때 사용해요. 또한 행위의 주체를 분명히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하기도 해요. 이제 아래 자료를 보고 피동 표현에 대해 탐구해 봅시다.

- ㉠ [별이 그를 쏘았다.
그가 별에 쏘였다.]
- ㉡ [내가 편지를 찢었다.
편지가 찢어졌다.]
- ㉢ [기자가 내 이야기를 신문에 실었다.
내 이야기가 신문에 실렸다.]
- ㉣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았다.
대통령이 뽑혔다.]
- ㉤ [*A가 추웠던 날씨가 풀었다.
추웠던 날씨가 풀렸다.]

* ‘*’는 문법에 맞지 않음을 나타냄.

학생 : [A]
선생님 : 네, 맞아요.

- ① ㉠을 보니, 피동 표현을 통해 행위의 대상인 ‘그’를 부각할 수 있겠군요.
- ② ㉡을 보니, 피동 표현을 통해 ‘편지’를 찢은 주체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을 수 있겠군요.
- ③ ㉢을 보니, 행위의 주체인 ‘기자’가 중요하지 않을 때 피동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겠군요.
- ④ ㉣을 보니, 행위의 주체인 ‘대통령’이 누구나 아는 사람일 때 피동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겠군요.
- ⑤ ㉤을 보니, 행위의 주체를 분명히 설정하기 어려워 피동 표현을 사용했겠군요.

14. <보기>의 ㄱ~ㄴ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ㄱ. 나는 키가 크다.
 ㄴ. 나는 여름만 좋아한다.
 ㄷ. 그녀는 시인이자 선생님이다.
 ㄹ. 그녀가 사과를 먹고 나는 배를 먹는다.

- ① ㄱ과 ㄷ을 구성하는 문장 성분의 종류는 동일하군.
- ② ㄱ과 ㄴ은 모두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나는군.
- ③ ㄴ과 ㄷ의 서술어의 개수는 동일하군.
- ④ ㄴ과 ㄴ은 모두 주어와 목적어를 포함하고 있군.
- ⑤ ㄷ과 ㄴ은 모두 연결 어미를 포함하고 있군.

15.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보 기>

중세 국어에서 과거 시제는 선어말 어미 '-더-'를 사용하여, 미래 시제는 선어말 어미 '-리-'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하지만 현재 시제는 품사에 따라 다르게 표현했는데, 동사는 선어말 어미 '-느-'를 사용하였고 형용사와 '체언+이다'는 특정한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지 않았다.

- 내 (㉠)
[내가 가겠습니다.]
- 사르미 (㉡)
[사람의 스승이다.]
- 네 이제 또 (㉢)
[네가 이제 또 묻는다.]

- | | | | |
|---|------|--------|-----|
| | ㉠ | ㉡ | ㉢ |
| ① | 가리이다 | 스스이다 | 묻는다 |
| ② | 가리이다 | 스스이다 | 묻다 |
| ③ | 가리이다 | 스스이시나다 | 묻는다 |
| ④ | 가더이다 | 스스이다 | 묻는다 |
| ⑤ | 가더이다 | 스스이시나다 | 묻다 |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라
초야우생*이 이리타 어떠하라
흐믓며 천석고황*을 고쳐 무엇하라 <언지 제1수>

연하로 집을 삼고 풍월로 벗을 삼아
태평성대에 병으로 늘거가뇌
이중에 브라는 일은 허물이나 업고자 <언지 제2수>

① 순풍*이 죽다 하니 진실로 거짓말이
인성이 어지다 하니 진실로 울흔말이
천하에 허다영재(許多英才)를 속여 말씀홀가 <언지 제3수>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보
고인을 못 봐도 가던 길 앞에 잇네
가던 길 앞에 잇거든 아니 가고 엇절고 <언학 제3수>

당시에 가던 길홀 몇 헛를 버려 두고
어디 가 다니다가 이제야 도라온고
이제야 도라오나니 다른 데 믿음 마로리 <언학 제4수>

우부(愚夫)도 알며 흐거니 그 아니 쉬온가
성인(聖人)도 못다 흐시니 그 아니 어려운가
쉽거나 어렵거나 중에 늙는 줄을 몰래라 <언학 제6수>

- 이황, 「도산십이곡」 -

* 초야우생: 시골에 묻혀 사는 자신을 낮추어 이르는 말.
* 천석고황: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몹시 사랑하고 즐기는 성질이나 버릇.
* 순풍: 순박한 풍속.
* 고인: 옛사람. 여기서는 공자, 맹자, 주자와 같은 성현을 이룸.

(나)

두 평쯤이나 될까 말까 한 좁은 감방 안에서 7, 8명의 식구가, 때로는 십여 명이 넘는 인구가 똥통과 동거 생활을 하면서 뒤를 볼 때에는 그래도 뒤지*가 필요하였다.

그러므로 경찰서에서는 이 불가피한 청구에 응하기 위하여 뒤지를 공급하고 있었다. 원래 뒤지감의 종이를 따로 만들어진 움큼씩 묶어서 파는 것이 있었지만 이 당시에는 전쟁 중의 일본이 경제적 파탄에 직면하고 있었으므로 뒤지조차 구하기 어려웠다.

그리하여 일반적으로 신문지나 읽어 넘긴 잡지 같은 것을 찢어서 뒤지로 쓰고 있는 형편이었다. 감방 안에서 이러한 뒤지의 공급을 받으면 이것은 도서관에서 책을 대하듯이 귀중한 읽을거리였다. 그런데 경찰서나 형무소에서는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바깥세상의 소식을 아는 것을 지극히 꺼리고 있어서 신문지 조각 같은 것은 좀처럼 들여 주지를 않았다. 만일 우리 동지들의 가족 중에서 음식물의 차입을 할 적에 신문지로 싸개지를 삼은 것이 있으면 대개는 난로에 넣어서 태워 버리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래도 혹시 신문지가 남아 있고 그것을 뒤지로 쓰겠다고 청구하면 읽을거리가 없어지도록 잘게 찢어서 넣어 준다. 그리하여 대개는 한 장이나 두 장밖에는 더 주지 않는다.

그러면 뒤를 보기 전에 이 신문지 쪽을 한 줄 한 자도 빼놓지 않고 읽는다. 뒤지를 받고서 왜 뒤를 안 보느냐고 따지는 일도 있기 때문에 똥통 위에 올라앉아서 그것을 읽어 버리는 일도 있었다.

이러한 재료는 같은 감방에 있는 동지들도 읽어 보기를 열심으로 바라고 있기 때문에 차마 혼자만 보고 없앨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무슨 꾀를 부리고 무슨 방법을 쓰든지 간에 신문 조각을 돌려 가며 윤독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읽되 어엿이 펼쳐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 안에 감추어질 만큼 접어서 간수의 눈을 피해 가며 몰래 읽어 내려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신문지 같은 것은 천재일우의 좋은 기회를 얻어야만 볼 수 있는 노릇이요, 보통 경우에는 왜정 당시 경찰계의 유일한 기관지로서 '경무회보'란 것이 있었다. 그리하여 경찰서에는 이 목은 잡지의 재고품이 상당히 풍부한 듯하여 이것으로 우리들에게 뒤지를 공급하고 있었다.

이 잡지는 주로 경찰 행정에 필요한 지식이나 참고 사항을 재료로 하여 편집한 것인데, 그중에는 혹 취미 기사도 있고 일본 사람으로서 양행한 기행문 같은 것도 있었다.

어쨌든 우리는 문초를 받는 일 외에는 열흘이 하루같이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팔짱을 끼고 부라질을 하며 온종일 앓아 있으므로 그 무료하기란 견주어 말할 데가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글밭이 있는 종잇조각이라도 얻어 읽는 경우에는 한결 지루한 시간이 험사리 지나는 것만 같았다. 더욱이 문초를 전부 마치고 그저 구속만 되어 있는 동안은 진정 세월이 더딘 것이 지루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경무회보'의 잡지 쪽을 많이 입수하도록 갖은 노력을 다 기울이었다.

우선 뒤를 자주 보기로 하였다. 설사가 나니까 한 장만으로 부족하니 석 장 녀 장씩 달라고 하였다. 가다가는 뒤지를 얻기 위하여 헛뒤를 보는 일도 있었다. 이렇게 하여 다 각각 얻은 뒤지를 서로 돌려 가며 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들여 주는 뉘지만으로는 진정 갈급질*이 나서 못 견딜 지경이었다. 그리하여 다량으로 뉘지를 입수하기에 청소꾼을 이용하는 일이 많았다. 젊은 사람이 청소하러 나가서 마치 담배를 훔쳐 들이듯이 뉘지를 걸터들어서 감방으로 들여 주곤 하였다. 이와 같이 도둑글을 읽다가 들켜서 뉘지를 빼앗기는 일도 있었고 뺨을 맞는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봉변을 당하고도 그래도 또 잡지 쪽 읽기를 단념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미루어 보면 ㉠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의욕은 벌을 받거나 모욕을 당하는 것만으로 깨끗이 청산하여 버리지 못하는 것이 역시 인간인가 싶었다. 이런 것도 인력으로 좌우할 수 없는 본능의 소치인 듯하였다. 그 진정한 경지는 실지로 당하여 보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 이회승, 「뉘지가 진적*」 -

* 뉘지: 똥을 누고 밑을 씻어 내는 종이.
* 갈급질: 부족하여 몹시 바라는 것.
* 진적: 진귀한 책.

16.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 모두 자신의 곁에 없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심정이 나타나 있다.
- ② (가)와 (나) 모두 다른 사람이 처한 문제 상황을 해결해 주려는 자세가 나타나 있다.
- ③ (가)와 (나) 모두 주변 사물에 가졌던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나타나 있다.
- ④ (가)에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모습이, (나)에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모습이 나타나 있다.
- ⑤ (가)에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나)에는 현실 상황에 대한 수용적 태도가 나타나 있다.

17. <보기>를 활용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도산십이곡」은 <언지> 여섯 수와 <언학> 여섯 수로 이루어진 연시조로서, 창작 의도를 밝힌 발문(跋文)이 함께 전해진다. <언지>에는 자연 속에 살며 인간의 선한 본성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뜻이, <언학>에는 선한 본성 회복을 위해 학문에 힘쓰겠다는 의지가 나타나 있다. 또한 발문에는 이황이 이 작품을 우리말로 지어 제자들이 노래로 부르며 향유하게 하여, 지향할 만한 삶의 방식과 바람직한 가치를 마음에 새기게 하려는 교육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이 드러나 있다.

- ① <언지>에 나타난 뜻을 참고할 때, ‘연하’와 ‘풍월’을 가까이 하며 ‘허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자연 속에 살며 선한 본성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언학>에 나타난 의지를 참고할 때, 다른 것에 ‘막음’을 두지 않으려는 것은 학문에 열중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발문의 내용을 참고할 때, ‘천석고향’을 고치지 않으려는 것은 이황이 제자들에게 지향할 만한 삶의 방식이라고 말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발문의 내용을 참고할 때, ‘고인’이 ‘가던 길’을 가려는 것은 제자들이 마음에 새길 만큼 바람직한 가치라고 이황이 생각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발문의 내용을 참고할 때, ‘우부’와 ‘성인’을 구분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성인을 본받아야 함을 보여 주려는 이황의 교육적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18.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대조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자신의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은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이 주변 사람에게 준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은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은 유사한 형태의 구절을 반복하여 상황이 나아지리라는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과 ㉡은 모두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상대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19.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회승은 일제 강점기에 우리말을 연구하고 보급한 조선어학회에서 활동한 지식인으로, 조선어학회가 민족주의 단체라는 이유로 검거되어 투옥 생활을 하였다. (나)에는 글을 읽는 것이 일상적이었던 사람들인 글쓴이와 조선어학회 동지들이 투옥 생활 중에도 읽을거리를 얻기 위해 노력하며 글을 읽으려는 의지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이를 통해 글을 읽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글쓴이의 면모가 드러난다.

- ① ‘뉘지’를 ‘귀중한 읽을거리’로 대하는 것에서, 일제 강점기 투옥 생활에서 읽을거리를 접하기가 쉽지 않았던 글쓴이의 처지를 알 수 있군.
- ② ‘이것으로 우리들에게 뉘지를 공급하’는 것에서, 글쓴이와 조선어학회 동지들이 읽을거리를 얻기 위해 노력한 결과를 알 수 있군.
- ③ ‘한결 지루한 시간이 험사리 지나는 것만 같’다고 여기는 것에서, 글을 읽는 것이 일상적이었던 글쓴이와 조선어학회 동지들이 글을 읽을 때 느끼는 만족감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다 각각 얻은 뉘지를 서로 돌려 가며 보는 것’에서, 글을 읽으려는 의지를 보이는 글쓴이와 조선어학회 동지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⑤ ‘이런 것도 인력으로 좌우할 수 없는 본능의 소치’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현실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글을 읽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글쓴이의 면모를 엿볼 수 있군.

[20~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통치 조직을 규정한 최고의 기본법이다. 헌법의 특질인 '최고규범성'은 헌법이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제정되었기 때문에 인정된다. 헌법의 하위에 있는 법규범들은 헌법으로부터 그 효력을 부여 받으며 존속을 보장 받으므로, 법률은 헌법에 합치되어야 하며 헌법을 위반하는 내용의 법률은 무효가 된다. 따라서 법률은 헌법에 모순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여야 한다.

헌법의 최고규범성에도 불구하고 헌법은 규범 체계상 하위에 있는 법규범들과는 달리 스스로를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른 법규범들에는 상위의 법규범인 헌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권력이라는 절대적인 강제 수단이 있어 그 효력이 보장되지만 헌법은 그렇지 못하다. 즉 헌법은 국가 권력이 그 효력을 부정하거나 침해할 수 없도록 헌법재판제도와 같은 장치를 스스로 마련하여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법규범과는 상이한 특징을 갖는데, 이것이 바로 헌법의 '자기보장성'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은 일반 소송과 달리 국가 기관이 그 재판 결과를 ㉠ 따르지 않아도 이를 강제적으로 따르게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가 권력을 포함한 헌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대상들이 이를 존중하는 조건하에 실현된다. 예를 들면, 대여금 지급 소송에서 돈을 빌려 준 사람이 이기는 경우 그 사람은 법원의 도움을 얻어 돈을 빌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강제로 팔아 빌려 준 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의 경우에는 어떠한 법률 조항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다며 입법자에게 개선 입법을 촉구하여도 입법부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입법부로 하여금 강제로 지키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따로 없다. 따라서 헌법의 최고 규범으로서의 효력은 (㉡)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헌법은 서로 다른 사람들 간에 존재하는 공통의 가치를 연결 고리로 하여 국가를 창설해 낸다. 헌법은 국가 내에서 이러한 공통의 가치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갈등을 해결하고, 국가 작용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그것을 담당할 기관과 절차를 규정한다. 그러나 헌법은 단순히 국가 작용을 체계화하고 국가 기관을 조직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헌법은 국가 작용을 담당하는 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오히려 국가가 추구하는 목적인 공통의 가치를 위협에 빠뜨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권력제한성'을 통해 헌법은 처음부터 조직적인 측면에서 권력의 악용과 남용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나)

헌법을 바라보는 여러 관점 중 헌법해석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헌법관으로는 법실증주의적 헌법관, 결단주의적 헌법관, 통합론적 헌법관을 들 수 있다.

법실증주의적 헌법관은 헌법을 국가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근본 규범으로 보는 관점으로, 권력자의 자의적 통치를 배제하고 법규범에 의한 통치를 지향하며 등장하였다. 국가는 강제적 법질서이고, 헌법은 실정 법질서에서의 최상위 규범이며, 국민은 법질서에 복종하는 존재라는 것이 법실증주의자

들의 인식이었다. 법실증주의 헌법학자들은 존재적 요소인 도덕·자연법 등을 배제하고 당위를 헌법학의 연구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학의 정확성과 엄격성, 법적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법실증주의는 산업화, 다원화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와 그에 따라 변화된 헌법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웠고, 정해진 법규범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실정법 만능주의라는 비판을 받았다.

결단주의적 헌법관은 헌법을 헌법제정권력의 근본적 결단으로 보는 관점으로, 주권자인 헌법제정권력자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헌법은 내용적으로 올바르기 때문에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지의 힘을 가진 자, 곧 헌법제정권력자의 의사에 의하여 정립되었기 때문에 정당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결단주의적 헌법관은 정치세력들의 일정한 타협의 결과, 즉 정치 결단적 요소를 인정하며 헌법의 현실적 배경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였다. 그러나 헌법의 규범성을 경시하고 현실적 영향력만을 강조하여 국가를 권력 투쟁의 장이 되게 하고, 독재자의 결단이 곧 국민의 의사라는 논리로 권위주의적 독재 국가의 등장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통합론적 헌법관은 헌법을 국가 통합을 위한 법질서로 보는 관점으로, 국가를 완전한 통일체로 보지 않고 지속적인 갱신의 과정으로 보았다. 통합론적 헌법학자들은 적대적 정치세력으로 분열된 국가를 새로운 통일체로 형성하기 위한 도구로 헌법을 인식하며, 헌법이란 공감대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국가의 통합을 실현하고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통합론적 헌법관은 헌법을 완성물이 아닌 하나의 과정으로 바라보며 오늘날의 민주주의적 상황과 다원적 산업 사회의 현실을 효과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통합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헌법의 규범성을 소홀히 하고, 통합 과정을 너무 조화롭게만 보아 갈등의 요소를 경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헌법이란 어느 한 요소에만 환원시킬 수 없는 국가라는 현상의 기본 질서이므로, 헌법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따라서 헌법의 효력이나 헌법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세 가지 헌법관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20. 다음은 (가), (나)를 읽고 학생이 작성한 활동지의 일부이다. ㉠~㉢에 대한 평가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공통점	■ 헌법의 다양한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 정보를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차이점	■ (가)는 (나)와 달리 헌법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통해 종합적인 절충안을 도출하고 있다. ㉡
	■ (나)는 (가)와 달리 헌법과 관련한 여러 입장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함께 밝히고 있다. ... ㉢

- | | | | |
|---|-----|-----|-----|
| | ㉠ | ㉡ | ㉢ |
| ① | 적절 | 적절 | 적절 |
| ② | 적절 | 부적절 | 부적절 |
| ③ | 적절 | 부적절 | 적절 |
| ④ | 부적절 | 적절 | 적절 |
| ⑤ | 부적절 | 부적절 | 부적절 |

21. 자기보장성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헌법은 국가 기관의 행위를 일반 소송을 통해 제한한다.
- ②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의 합의에 의해 규범성이 인정된다.
- ③ 헌법은 효력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헌법 내에 마련한다.
- ④ 헌법은 규범 체계상 하위의 법규범에 의해 효력이 보장된다.
- ⑤ 헌법은 헌법에 의한 권력 남용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한다.

22.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행을 위한 강제 수단 마련
- ② 헌법에 의해 권한을 부여 받은 입법부의 독자성 보장
- ③ 최고 규범을 판단하는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법적 권위
- ④ 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 권력의 법적 제재 수단
- ⑤ 헌법의 내용을 실현하고자 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적극적 의지

23. '통합론적 헌법학자'의 관점에서 '법실증주의 헌법학자'를 비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헌법을 통해 자의적 통치를 배제하고자 하는 것으로는 헌법의 규범성을 설명할 수 없다.
- ② 정해진 법규범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으로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와 헌법을 설명할 수 없다.
- ③ 존재적 요소를 헌법학의 연구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는 다원적 산업 사회의 현실을 설명할 수 없다.
- ④ 국민을 법질서에 복종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으로는 헌법제정권력자로서의 국민의 의지를 설명할 수 없다.
- ⑤ 국가를 권력 투쟁의 장으로 보는 것으로는 분열된 국가를 새로운 통일체로 형성하는 도구로서의 헌법을 설명할 수 없다.

24. <보기>는 헌법재판소 판례의 일부이다. (가)와 (나)를 바탕으로 <보기>의 ㉠,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소원(2016헌바 등 병합)>

-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심판대상조항은 구청장·군수·시장 등이 대형 마트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인데, 이는 대형마트와 중소 유통업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규제라 할 것이므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소원(2014헌바3)>

- 헌법 제32조 제3항에 따르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 심판대상조항은 해고예고제에서 월급 근로자 중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적용 예외로 규정한 것인데, 돌발적 해고 시 해당 근로자의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지 못하므로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한다. 제도의 적용 대상 범위 등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권한이나, 이 역시 헌법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

- ①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고려하면, ㉠을 '경제주체 간의 조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헌법의 권력제한성을 고려하면, ㉡와 관련된 '입법자의 권한'은 국가 공통의 가치를 실현하는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법실증주의적 헌법관에 따르면, ㉠에는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이라는 권력자의 통치 이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결단주의적 헌법관에 따르면, ㉡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주권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통합론적 헌법관에 따르면, ㉠에는 '경제의 민주화'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국가의 통합을 실현하려는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25. 문맥상 ㉠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우리는 명령을 따르며 급히 움직였다.
- ② 어머니를 따라 풍물 시장 구경을 갔다.
- ③ 나는 아버지의 음식 솜씨를 따를 수 없다.
- ④ 최근 개발에 따른 공해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 ⑤ 의원들이 모두 의장을 따라 자리에서 일어섰다.

[26~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서양철학에서는 많은 철학자들이 기억을 중요한 사유로 인식하며 논의해 왔다. 플라톤은 사물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본질적 원형인 이데아가 기억을 통해 인식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데아에 대한 기억이 그것에 대한 망각보다 ㉠ 뛰어난 상태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둘 사이에 가치론적 이분법을 설정한 것이다. 더 나아가 하이데거는 진리가 망각이 없는 상태, 즉 기억이 지배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렇듯 전통적 서양철학에서 기억은 긍정적인 능력으로, 망각은 부정적인 능력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다.

이와 같은 철학적 사유 속에서, 피히테는 ‘자기의식’이라는 개념을 체계적으로 확대하여 설명하는 과정에서 ㉡ 기억을 세계 경험에 대한 최고 수준의 기능으로 인식하였다. 그는 어떤 대상에 대해 ‘㉢ A는 A이다’라는 명제에 의거하여 주장을 할 때, ‘나는 나이다’가 성립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동일성을 주장하는 ‘의자는 의자이다’와 같은 명제로 이해할 수 있다. 예전에 친구와 같이 앉았던 의자를 보았을 때, 우리는 이 의자가 바로 그때의 의자라고 주장할 수 있다. 즉 ‘A는 A이다’라는 명제는 ‘과거의 A가 현재의 A이다’라는 주장으로 현실화된다. 이러한 주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의자를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는 과거 그 의자에 앉았던 자신을 기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가 주장한 ㉣ 자기의식은 기억의 능력을 통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같음을 의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기의식을 망각한다면 우리는 친구를 만나도 친구인 줄 모를 것이므로, 그의 입장에서는 기억이 없다면 세계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한편, 니체는 이와 같은 사유 전통을 거부하며 기억 능력에 대해 비판하였다. 그는 기억이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능력이라면, 망각은 능동적이며 창조적인 능력이라고 인식하였다. 그에게 있어 망각은 기억을 뛰어넘고자 하는 치열한 투쟁이었다. 그는 망각에 대해 긍정하기 위해 신체와 관련된 사례를 제시하였다. 새로운 음식을 먹으려면 위를 비워야 하며 음식물을 배설하지 못한다면 건강한 삶을 ㉤ 살아갈 수 없듯이, 과거의 기억들이 정신에 가득 차 있다면 무언가를 새롭게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기억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 낯설고 불편한 것으로 여겨 변화와 차이를 긍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었다.

또한 그는 건강한 망각의 역량을 복원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순진무구한 아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아이가 바닷가에 놀러가 모래성을 만들었을 때, 이것이 부서지더라도 슬퍼하기보다는 웃으면서 즐거워할 것이라고 보았다. 아이는 그 자리에 다시 새로운 모래성을 만들 수 있음을 직감하기 때문에 부서진 모래성을 기억하면서 좌절하고 우울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렇듯 니체에게 아이는 망각의 창조적 능력을 ㉦ 되찾은 인간을 상징하였다. 결국 그는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능력으로써 망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니체가 인간이 가진 기억 능력 자체를 완전히 제거하자고 주장했던 것은 아니다. 철저한 망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지

속되는 기억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마치 음식이 위에서 전혀 머무르지 않고 바로 배설된다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주된 사유로 인식되던 서양철학에서 망각의 능력을 ㉧ 찾아내고자 했다는 점에서 니체의 사유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6. 독서의 분야를 고려하여 윗글을 읽는다고 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_____ ㉡ _____ 하며 읽어야겠군.

- ① 인간의 사상을 탐구하고 있으므로, 글에 담긴 관점을 정확하게 파악
- ② 사회 현상을 다루고 있으므로, 관련된 배경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
- ③ 삶의 문제를 분석하고 있으므로, 글에 반영된 사회적 요구를 논리적으로 평가
- ④ 사실과 법칙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용어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
- ⑤ 연구 성과를 실생활에 응용하고 있으므로, 사용된 자료의 신뢰성을 적절히 판단

27.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플라톤은 가치론적 이분법을 통해 기억을 설명하였다.
- ② 하이데거는 기억이 지배하는 상태를 진리로 인식하였다.
- ③ 니체는 망각을 긍정적인 능력이라고 판단하며 서양철학의 전통적 사유를 비판하였다.
- ④ 니체는 음식물이 위에 가득 남아 있는 상황과 정신이 기억으로 가득 찬 상태가 유사하다고 생각하였다.
- ⑤ 니체는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철저한 망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28.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 없어도 ㉡에 의거한 주장이 가능하다.
- ② ㉠이 가능해야만 ㉡도 가능하다.
- ③ ㉡이 성립해야만 ㉠이 성립한다.
- ④ ㉡은 ㉠을 위해 존재한다.
- ⑤ ㉡은 ㉢이 전제되어야 한다.

2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갑: 지갑이 많이 낡았네. 하나 새로 사줄까?
을: 아직은 새로 사기 싫어요. 아빠가 생일 선물로 처음 사 주신 거라서 저한테는 의미가 있고 익숙해서 좋아요.
갑: 그렇구나. 근데 지난번에는 평소와 달리 국어 시험 못 봤다고 했잖아. 이번 시험 준비는 잘 하고 있니?
을: 지난 시험은 지난 시험일 뿐이죠. 잊을 건 잊고 이번 국어 시험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 ① 피히테는 을이 선물을 받았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이 같음을 기억의 능력을 통해 의식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 ② 피히테는 을의 ‘지난 시험은 지난 시험이다.’라는 주장은 ‘시험은 시험이다’라는 명제가 현실화된 것이라고 볼 것이다.
- ③ 니체는 을이 지갑에 대한 과거의 기억에 집착하여 지갑을 새로 사는 것을 긍정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 ④ 니체는 을이 국어 시험을 다시 준비하는 것을 보고 기억을 뛰어넘어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것이다.
- ⑤ 니체는 을이 지난 시험 결과에 대해 좌절하지 않는 것은 다음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을 직감하기 때문이라고 볼 것이다.

30.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우월(優越)한
- ② ㉡: 영위(營爲)할
- ③ ㉢: 난해(難解)하고
- ④ ㉣: 회복(回復)한
- ⑤ ㉤: 발견(發見)하고자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김장우는 형이 경영하던 여행사가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는 것을 두 손 늘어뜨리고 지켜보아야만 하는 고통이 있었다. 형은 가지고 있던 아파트와 늪에서 행여 사랑하는 동생과 나란히 집 짓고 살 수 있을까 해서 마련했던 시골의 땅과 자동차까지 다 팔았다. 동생은 잔액이 몇 십만 원인 통장까지 모조리 형에게 내밀었다. 형은 잔액이 몇 십만 원인 통장만 받고 나머지 적금 통장 등은 동생에게 돌려주었다. 야 이놈아, 죽지 않으려면 최소한 씨앗 값은 남겨야지, 형은 이렇게 말하며 동생의 등을 툭 쳤다던가.....

㉠ 나도 만만치가 않았다. 나에게진 진모가 있었다. 진모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어머니는 검찰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온갖 정보들을 검토하고 분석하느라고 아예 가게를 접었다. 어머니 같은 보호자들만 골라 전문적으로 사기를 치는 사건 브로커에게 걸려 한차례 생돈을 날린 후로 조금 기가 꺾였지만, 그래도 어머니는 아침마다 건전지를 갈아 끼운 기계 인간처럼 싱싱하게 일어나 온종일 뛰어다니다 저녁이면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는 일과를 버리지 않았다. 어머니는, 정말 어머니는 대단했다. 사건 브로커에게 걸려 돈을 뜯긴 후 어머니는 당장 서점

으로 달려가 형법에 관한 책을 한 권 사 들고 왔다. 법을 알아야 법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어머니의 논리는 지극히 타당했다. 문제는 그 전문 서적을 어머니가 읽어낼 수 있느냐는 것뿐이었다. 그런 어머니를 위해 나는 시내의 대형 서점을 뒤져서 전직 검사나 현직 변호사들이 법에 관해 쉽게 풀어 쓴 책을 두 권 샀다.

깊은 밤, 내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돈보기를 쓰고 법정 이야기들을 읽었다. 몇 달 전에는 그렇게 일본어 회화 책을 읽었고 지금은 ㉡ 형법 책을 읽는 어머니. 이미 말했듯이 어머니는 궁지에 몰리는 마지막 순간에는 버릇처럼 책을 떠올리는 사람이었다. 생각해 보면, 예기치 않은 삶의 곤경에 처할 때마다 어머니가 읽었던 여러 권의 책들 중에는 형법 책 못지않은 난해하고 어려웠던 독서가 또 있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책의 제목은 아마 『정신 분열증의 이해와 치료』일 것이었다. 어쩌나 두꺼운 지 읽다가 베개 삼아 잠들어도 좋았던 그 ㉢ 의학 책은 아버지를 위해 어머니가 선택한 책이었다. 그때도 그랬듯이 지금도 어머니는 진지하게 책을 읽었다. 아니, 그때보다 훨씬 더 진지하게 보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그때는 없었던 돈보기가 어머니의 독서를 한층 그럴싸하게 만들고 있었으므로. 이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독서는 아닐 것이었다. 그것은 짐작할 수 있지만 미래에 내 어머니가 읽어야 할 책이 무엇인지, 세상과 맞서 싸우기 위해 또 어떤 ㉣ 난해한 분야의 책들을 골라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다만 한 가지, 어머니는 결코 이모가 읽어 왔던 그 많은 소설책이나 시집을 선택해 책값을 치르지 않을 것이란 점만은 분명했다.

[중략 줄거리] 어머니는 일본인을 상대하는 식품점을 새로 열고, 불화의 원인인 아버지는 가출했다가 중풍과 치매에 걸려 돌아온다.

아버지 시중 때문에 결국 어머니는 가게에 점원 한 사람을 두었다. 얼마 되지 않는 수입에서 점원 월급까지 나가야 하니 그것 또한 어머니의 나날을 긴장으로 채워 주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더욱 바빠졌고 나날이 생기를 더해 갔다. 아, 어머니의 불행하고도 행복한 삶.....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자신의 인생을 벗어던지고 덤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 진짜 인생은 자기 혼자 다 즐기고, 덤으로 얹혀질 인생의 시기에 비로소 가족에게 돌아온 아버지는 천진난만 그 자체였다. 생의 이면을 보아 버린 자의 그 많은 갈등과 괴로움도 단숨에 압축해 버리니 별것도 아니었다. 남은 것은 음식에의 탐욕, 그것뿐이었다. 아버지의 뇌파는 오직 먹는 것에만 싱싱하게 반응하였다. 하루에도 몇 번씩 굶어 죽는다고 엄살이었다.

“배고파라. 아이구, 배고파 죽겠어. 이것 좀 봐, 배가 납작하게 붙었잖아.”

㉤ 슬픈 일몰을 이야기하고 아름다운 비밀 반쪽을 나에게 나누어 주던 아버지는 사라졌다. 나는 그것을 확인했다. 아버지 손과 내 손을 맞춰 보았지만 맞지 않았던 것이었다. 병과 늪음이 아버지의 손을 축소시켜 놓았다. 아버지의 뼈만 남은 야윈 손가락을 힘들여 펴서 손바닥을 포개 봤더니 두께는 고사하고 길이도 반 마디나 내가 컸다.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 아마도, 우리는 영영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헤어질 것이다. 왜 사랑하는 우리를 멀리하고 떠돌아야만 했는지 묻지도 못한 채 나는 아버지와 헤어질 것이었다. 어쩌면 바로 그것이 아버지가 내게 물려주고 싶었던 중요한 인생의 비밀이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옛날, 창과 방패를 만들어 파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랑했다. 이 창은 모든 방패를 뚫는다. 그리고 그는 또 말했다. 이 방패는 모든 창을 막아낸다. 그러자 사람들이 물었다. 그 창으로 그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는가. 창과 방패를 파는 사람은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다.

이제는 나의 이야기를 해야 할 차례다. 나는 곧 결혼한다. 어머니와 이모에 이어 나도 4월의 신부가 된다. 물론 4월 1일 만우절은 아니다. 일 년 전쯤의 어느 날 아침, 불현듯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내 인생에 나의 온 생애를 다 걸어야 해. 꼭 그래야만 해!”라고 부르짖었던 나의 다짐이 마침내 결혼이라는 실천의 단계에 이른 것이다.

그 다짐에 충실했던 일 년이었다. 살필 수 있는 만큼은 다 살폈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 생각했다. 그리고 결정했다. 4월의 결혼식에 내 손을 잡아 줄 남자는 그래서 나영규가 되었다. 일이 그렇게 되었으므로 ‘헤어진 다음날’은 나와 김장우의 노래가 되었다. 그러나 나는 헤어진 다음날들은 죽음뿐이라고 생각한 이모와는 달랐다. 나는 잘 견디었다. ㉠ 김장우는 어떠한지 알 수 없지만.

인간에게는 행복만큼 불행도 필수적인 것이다. 할 수 있다면 늘 같은 분량의 행복과 불행을 누리야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라고 이모는 죽음으로 내게 가르쳐 주었다. 이모의 가르침대로 하자면 나는 김장우의 손을 잡아야 옳은 것이었다. 그러나 역시 이모의 죽음이 나로 하여금 김장우의 손을 놓아 버리게 만들기도 했다.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보였던 이모의 삶이 스스로 에겐 한없는 불행이었다면,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에게 불행하게 비쳤던 어머니의 삶이 이모에게는 행복이었다면, 남은 것은 어떤 종류의 불행과 행복을 택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문제뿐이었다. 나는 내게 없었던 것을 선택한 것이었다. 이전에도 없었고, 김장우와 결혼하면 앞으로도 없을 것이 분명한 그것, 그것을 나는 나영규에게서 구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이모가 그토록이나 못 견뎠던 ‘무덤 속 같은 평온’이라 해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삶의 어떤 교훈도 내 속에서 체험된 후가 아니면 절대 마음으로 들을 수 없다. 뜨거운 줄 알면서도 뜨거운 불 앞으로 다가가는 이 모순, 이 모순 때문에 내 삶은 발전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우이독경, 사람들은 모두 소의 귀를 가졌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 일 년쯤 전, 내가 한 말을 수정한다. 인생은 탐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탐구하는 것이다. 실수는 되풀이된다. 그것이 인생이다…….

- 양귀자, 「모순」 -

3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계절적 배경의 묘사를 통해 인물의 변화된 심리를 드러낸다.
- ② 독백적 진술을 통해 인물의 복잡한 내면 심리를 드러낸다.
- ③ 의식의 흐름 기법을 통해 인물의 무의식적 욕망을 드러낸다.
- ④ 의문과 추측의 진술을 통해 다른 인물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다.
- ⑤ 과거와 현재의 교차 서술을 통해 인물 간 갈등 양상을 드러낸다.

3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가족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김장우처럼 ‘나’도 유사한 고통이 있음을 보여 준다.
- ② ㉡: 과거의 순간들을 함께했던 아버지에 대해 ‘나’가 애뜻함을 갖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③ ㉢: 아버지의 병세가 호전되지 않을 것이라는 ‘나’의 부정적 인식을 보여 준다.
- ④ ㉣: 심리적 갈등을 회피하는 ‘나’의 소극적 태도를 보여 준다.
- ⑤ ㉤: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나’의 깨달음을 보여 준다.

33. ㉠~㉣를 중심으로 **어머니의 독서**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이다.
- ② 특정 대상과의 차별화를 목적으로 한 행위이다.
- ③ 정서적 안정을 위해 감정을 정화하는 행위이다.
- ④ 즐거움을 얻기 위해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행위이다.
- ⑤ 가치관의 정립을 위한 개인적 성찰이 전제된 행위이다.

34. <보기>는 ‘작가 노트’ 중 일부이다. 이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인간이란 누구나 각자 해석한 만큼의 생을 살아낸다. 해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사전적 정의에 만족하지 말고 그 반대어도 함께 들여다볼 일이다. 행복과 불행, 삶과 죽음, 정신과 육체, 풍요와 빈곤. 행복의 이면에 불행이 있고, 불행의 이면에 행복이 있다. 풍요의 뒷면을 들추면 반드시 빈곤이 있고, 빈곤의 뒷면에는 우리가 찾지 못한 풍요가 숨어 있다. 세상의 일들이란 모순으로 짜여 있으며 그 모순을 이해할 때 조금 더 삶의 본질 가까스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 ① ‘더욱 바빠졌고 나날이 생기를 더’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불행의 이면에 행복이 있다는 삶의 모순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② ‘아버지가 내게 물려주고 싶었던 중요한 인생의 비밀’은 삶의 본질이 모순에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 ③ ‘그 다짐에 충실했던 일 년’은 사전적 의미와 그 반대 의미까지도 탐구하여 모순된 생애 대한 이해를 확장한 시기였겠군.
- ④ ‘내게 없었던 것을 선택한’ 나의 결정은 물질적 행복의 이면에 있는 불행을 거부하려는 모순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⑤ ‘무덤 속 같은 평온’은 물질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빈곤에 시달렸던 이모의 모순된 삶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35~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생물들 중에는 독을 가진 경우가 흔하다. 이러한 생물들은 위협적인 상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거나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 독을 이용한다. 특히 동물은 사냥감을 포획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독을 사용한다. 이와 같은 독은 식물과 동물에 따라 다양한 특징을 보인다.

식물 독의 주성분은 대부분 알칼로이드라는 물질인데 이는 질소를 함유하는 염기성 유기화합물을 일컫는 것으로, 그 예에는 투구꽃의 ‘아코니틴’과 흰독말풀의 ‘아트로핀’이 있다. 아코니틴과 아트로핀은 모두 동물의 신경계에서 ‘근육에 가

해진 자극이나 뇌가 내린 명령'에 관한 정보가 전달되는 것을 방해한다. 먼저 ㉠ 아코니틴은 신경 세포의 나트륨 이온 통로를 계속 열어두기 때문에 나트륨 이온을 세포 안으로 다량 유입시킨다. 이로 인해 이온의 농도 차에 의한 나트륨 이온의 이동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아, 전기 신호인 활동전위*가 신경 세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아세틸콜린이 분비되지 않아, 결국 호흡 곤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적정량을 사용하면 진정 효과 등의 약리 작용이 있기 때문에 아코니틴을 진통제의 성분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한편 아트로핀은 부교감 신경의 시냅스에서 아세틸콜린 대신에 아세틸콜린 수용체와 결합함으로써 아세틸콜린의 작용을 방해한다. 여기서 아세틸콜린은 활동 전위에 의해 신경 세포 말단에 있는 시냅스 소포에서 분비된 후, 다른 신경 세포로 정보를 전달하는 물질이다. 아세틸콜린의 분비가 억제되거나 아세틸콜린이 아세틸콜린 수용체와 결합하지 못하면 신경의 흥분이 억제되어 근육은 이완되지만 아세틸콜린이 과잉 분비되면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아트로핀은 아세틸콜린과 화학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아세틸콜린 수용체와 결합함으로써 시냅스에서 이루어지는 정보 전달을 방해하게 된다. 이를 이용해 아트로핀은 ㉡ 일부 독의 해독제로 쓰이기도 한다.

반면 동물 독은 독의 성질이 제각기 다르다. 대표적으로 뱀의 독에는 주로 단백질 계열의 50~60종의 성분이 있으며, 뱀마다 독의 작용에도 큰 차이가 있다. 코브라에게 물리면 '오피오톡신'이 시냅스에서 아세틸콜린 수용체와 결합해 근육으로의 정보 전달이 방해된다. 이와 달리 살무사에게 물리면 '크로탈로톡신'이라는 독이 혈액 내의 혈구 세포와 혈소판 등을 파괴한다. 이로 인해 근육이 괴사되고 출혈이 멈추지 않아 죽게 된다. 한편 복어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알칼로이드 계열의 독소를 가지고 있다. ㉢ 테트로도톡신은 신경 세포의 나트륨 이온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활동 전위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아세틸콜린이 분비되지 않는다. 특히 테트로도톡신은 복어가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복어가 먹이로 섭취한 플랑크톤에 의해 축적되거나 복어 체내에 기생하는 균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독이 우리 몸에 유입되면 해독제를 신속하게 투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독제로는 산과 염기의 반응을 이용한 중화제, 독소 분자를 분해하는 효소, 유입된 독과 서로 반대 작용을 하는 독을 활용할 수 있다.

* 활동 전위: 생물체의 세포나 조직이 활동할 때 일어나는 전압 변화.

35. 밑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아코니틴에 의해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일까?
- ② 복어의 독소는 무엇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일까?
- ③ 알칼로이드가 질소를 함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④ 살무사에게 물리면 출혈이 멈추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 ⑤ 오피오톡신과 크로탈로톡신의 작용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36.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트로핀이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물질의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 ② 아트로핀이 아세틸콜린을 소모하여 부교감 신경의 흥분을 유도하기 때문에
- ③ 아트로핀이 아세틸콜린을 분비시켜 신경계의 정보 전달을 유도하기 때문에
- ④ 아트로핀이 아세틸콜린의 작용을 방해해 부교감 신경의 흥분을 억제하기 때문에
- ⑤ 아트로핀이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억제하고 다른 신경전달물질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37.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나트륨 이온의 농도 차이를 일정하게 유지시킨다.
- ② ㉠은 ㉢과 달리 세포 안으로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 ③ ㉢은 ㉠과 달리 아세틸콜린과 화학 구조가 유사하다.
- ④ ㉢은 ㉠과 달리 아세틸콜린의 분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⑤ ㉠과 ㉢은 모두 신경 세포에서 활동 전위가 일어나지 못하게 방해한다.

38.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A의 옆에는 알칼로이드에 속하는 스코폴라민이 포함되어 있는데, 강한 쓴맛 때문에 동물에게 먹히지 않는다. 스코폴라민이 몸속에 들어오면 아세틸콜린 수용체와 결합하므로 멀미약의 성분으로 이용된다.
- B는 꼬리에 있는 독침에서 분비되는 단백질 계열의 카리브도톡신을 이용한다. 카리브도톡신이 먹잇감인 곤충의 몸속에 들어가면 활동 전위가 계속 일어나도록 하기 때문에 시냅스 말단에서는 아세틸콜린이 과잉 분비된다.

- ① A의 스코폴라민은 시냅스에서 이루어지는 정보 전달을 방해하는 작용을 하겠군.
- ② B의 카리브도톡신은 신경의 흥분을 억제하므로 근육으로의 정보 전달을 방해하겠군.
- ③ A의 스코폴라민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B의 카리브도톡신은 근육을 수축시켰겠군.
- ④ A의 스코폴라민은 산성 물질을, B의 카리브도톡신은 단백질 분해 효소를 해독제로 활용할 수 있겠군.
- ⑤ A에게 스코폴라민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B에게 카리브도톡신은 사냥감을 포획하기 위한 수단이겠군.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비탈진 공터 언덕 위 푸른 풀이 덮이고 그 아래 웅덩이 옆
미루나무 세 그루 **갈라진 밑동에도 푸른 싹이 돋았다** 때로 늙
은 나무도 젊고 싶은가 보다
기다리던 것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누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가 누구의 목을 껴안듯이 비틀었는가 [A]
나도 안다 돼지 목 따는 동네의 더디고 나른한 세월
때로 우리는 묻는다 **우리의 굵은 등에 푸른 싹이 돋을**
까 묻고 또 묻지만 비계처럼 씹히는 달착지근한 혀, 향시 [B]
우리들 삶은 낡은 유리창에 흔들리는 먼지 낀 풍경 같은
것이였다
흔들리며 보채며 얼핏 잠들기도 하고 그 잠에서 깨일
때 솟아오르고 싶었다 세차장 고무호스의 **길길이 날뛰는**
물줄기처럼 갈기갈기 찢어지며 아우성치며 울고불고 머리 [C]
칼 쥐어뜯고 몸부림치면서.....
그런 일은 없었다 돼지 목 따는 동네의 더디고 나른한 세월,
풀잎 아래 엎드려 숨죽이면 가슴엔 **윤기나는 석탄층***이 깊었다
- 이성복, 「다시 봄이 왔다」 -
* 석탄층: 식물이 땅속에 층을 이루어 퇴적되면서 생긴 층.

(나)
옆구리에서 아까부터
무언가 꿈지락거리고 있었다.
내려다보니 **작은 할머니**였다.
만원 전동차에서 내리려고
혼자 ㉠ **헛되이**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승객들은 빈틈없이 할머니를 에워싸고
높고 ㉡ **튼튼한 벽**이 되어 있었다.
할머니가 아무리 중얼거리며 떠밀어도
벽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있는 힘을 다하였으나
태아의 발가락처럼 꿈틀거릴 뿐이었다.
전동차가 멈추고 문이 열리고 닫혔지만
벽은 ㉢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할머니가 필사적으로 꿈틀거리는 동안
꿈틀거릴수록 점점 작아지는 동안
승객들은 빈틈을 ㉣ **더** 세계 조이며
더욱 ㉤ **견고한** 벽이 되고 있었다.
- 김기택, 「벽」 -

39.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단정적 진술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도치의 방식을 활용하여 시적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점층적 표현을 활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 ④ 반복과 열거를 활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⑤ 색채의 상징적 의미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40. [A]~[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변화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오는 권태로운 삶을 드러내고 있다.
 - ② [B]: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B]: 생기 있는 삶을 기대할 수 없는 비관적 현실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C]: 치열하고 역동적으로 살기 위해 과거의 삶을 반성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⑤ [C]: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활기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41. ㉠~㉤의 의미를 고려하여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활용하여 혼자의 힘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할머니의 상황을 부각하고 있군.
 - ② ㉡을 활용하여 할머니의 어려움을 심화시키는 대상을 강조하고 있군.
 - ③ ㉢을 활용하여 할머니의 고통에 반응하지 않는 승객들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군.
 - ④ ㉣을 활용하여 속박된 상황을 벗어나려는 할머니의 모습을 부각하고 있군.
 - ⑤ ㉤을 활용하여 할머니의 처지에 관계없이 자신의 상황을 고수하고 있는 승객들의 모습을 부각하고 있군.

42.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시는 언어를 통해 이미지를 발현하고 영화는 영상을 통해 이미지를 표출한다. 시는 시어와 행과 연으로, 영화에서는 쇼트와 쇼트의 조합을 통해 이미지를 구성해 간다. 영화 기법은 영상의 이미지를 다루는 방법으로 시의 이미지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틀을 제공한다.

먼저 촬영 기법인 클로즈업은 주관적 의도에 의해 선택된 대상을 확대하여 대상에 집중하게 하고 관련된 상황과 심리를 강조한다.

한편 편집 기법인 몽타주는 이질적인 장면이나, 시공간이 다른 장면들을 연결하여 그들 사이의 대조나 유사성에 의한 연상적 비교를 일으켜 정서적 반응을 유발한다.

- ① (가)의 ‘갈라진 밀동’에 돋은 ‘푸른 싹’이 클로즈업처럼 확대되어 화자가 바라는 삶의 모습이 강조되었군.
- ② (가)의 ‘우리의 굽은 등’과 ‘먼지 낀 풍경’은 몽타주 기법처럼 연결되어 화자가 처한 부정적 상황에 대한 정서가 유발되었군.
- ③ (가)의 ‘길길이 날뛰는 물줄기’와 ‘윤기나는 석탄층’은 몽타주 기법처럼 연결되어 현실에 맞서는 화자에 대한 정서가 유발되었군.
- ④ (나)의 ‘작은 할머니’와 높은 ‘벽’은 몽타주 기법처럼 연결되어 괴로움을 느끼는 할머니에 대한 정서가 유발되었군.
- ⑤ (나)의 ‘꿈틀거리’는 ‘할머니’의 모습이 클로즈업처럼 확대되어 할머니가 애쓰는 상황이 강조되었군.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불도 수행자 성진은 여덟 선녀를 희롱한 죄로 육관대사에 의해 연화봉에서 쫓겨나 꿈속에서 양소유로 환생한다.

양생이 과거가 닳았지만 과거에는 마음이 없어 수일 후에도 두련사를 찾아보니 두련사가 말하되,
 “한 처자가 있으니 재모를 의논하면 분명 양량의 짝이로되 다만 가문이 너무 높아 공후의 벼슬을 여섯 대에 걸쳐 지냈고 대대로 정승을 한 집안이라. 양량이 만일 신방 급제를 하면 이 혼사를 의논하려니와 그 전에는 부질없으니 구태여 노신을 자주 찾아와 보지 말고 과거에 힘쓸지어다.”
 양생이 왈,
 “어떤 집 여자니까?”

두련사가 왈,
 “춘명문 안에 사는 정 사도 집이니 붉은 칠한 문이 길에 닿아 있고 위에 계극을 배설한 집이라.”
 양생이 심중에 섬월이 말하던 여자인 줄 알고 가만히 생각하되,
 ‘어떤 여자이기에 두 서울 사이에 이렇듯 이름을 얻었는고?’
 하고 묻기를,
 “정 씨 여자를 사부께서 일찍이 보신 적이 있으니까?”
 두련사가 왈,
 “어찌 보지 못하였으리오. 정 소저는 하늘 사람이니 어찌 언어로 형용하리오?”
 양생이 왈,
 “소자 감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과거는 소자의 주머니 가운데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평생 [A] 바라는 바가 있어 처자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 구혼을 하지 않으려 하나니 사부는 자비를 베풀어 소자로 하여금 한번 보게 하소서.”
 두련사가 크게 웃고 이르되,
 “재상이 처자를 어찌 서로 볼 수 있으리오. 양량이 노신의 말이 믿음직하지 않은가 의심하느냐?”
 양생이 왈,
 “소자가 어찌 감히 의심하리이까?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다 각각 다르니 사부의 눈이 어찌 소자와 같겠사옵니까?”
 두련사가 왈,
 “그렇지 않다. 봉황과 기린은 사람마다 상서로운 줄 알고 청천백일은 사람마다 그 청명함을 우러러보나니 만일 눈 없는 사람이 아니면 어찌 자도가 고운 줄을 모르리오?”
 양생이 오히려 기분이 좋지 못하여 돌아왔다가 이튿날 일찍 자청관에 오니 두련사가 웃고 이르되,
 “양량이 일찍 오니 분명 까닭이 있도다.”
 양생이 말하되,
 “정 소저를 보지 못하고는 소자 끝내 의심이 있으니 사부는 우리 모친이 정성을 다해 부탁한 것을 생각하여 계교를 베풀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잠깐 바라보게 하소서.”
 (중략)

전 노파가 교자를 타려 하다가 문득 들으니 삼청전 동쪽 정당 앞에서 거문고 소리가 나는데 매우 맑았다. 이에 방황하며 차마 가지 못하고 귀를 기울여 듣자 그 소리가 더욱 묘한지라. 두련사에게 이르되,
 “내 부인을 뵈셔 유명하고 잘 타는 거문고를 많이 들었으되 이 곡조는 듣지 못하였으니 대관절 어떤 사람이니까?”
 두련사 대답하되,
 “수일 전에 초 땅에서 나이 젊은 여관이 서울 구경차 이곳에 와 머물며 이따금 거문고를 타되 나는 곡조를 알지 못하더니 그대가 칭찬하니 필연 잘 타는 솜씨로다.”
 전 노파가 말하되,
 “우리 부인이 들으시면 부르실 법하니 두련사는 저 사람을 머물러 두소서.”
 재삼 당부하고 가더라.
 두련사가 전 노파를 보내고 양생에게 이 말을 전하고 좋은 소식이 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더니 다음날 정 사도 집에서 작은 교자와 시비 한 사람을 보내 거문고 타는 여자를 청하였다. 양생이 여사도의 복장으로 거문고를 안고 나서니 마고

선자와 사자연 같더라. 양생이 교자에 올라 정 사도 집에 가니 부인이 당상에 앉았으니 위위가 매우 단엄하더라.

양생이 거문고를 놓고 당 아래에서 머리를 숙이자 부인이 당으로 올라오라 하여 자리를 주고 말하되,

“어제 집안 시비가 자청관에 갔다가 신선의 풍류를 듣고 왔다 말하기에 한번 보고자 하였더니 이제 도사의 맑은 거동을 서로 대하니 돈연히 더러운 마음을 사라지게 하는도다.”

양생이 자리를 피하여 대답하되,

“빈도는 본래 오초의 사람이라. 구름 같은 자취가 정처 없이 다니더니 천한 재주를 인연하여 부인을 뵈 줄은 뜻밖이니이다.”

부인이 이르되,

“사부께서 타던 바는 무슨 곡조인고?”

양생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빈도가 일찍이 남전산에서 이인을 만나 여러 가지 곡조를 전수받았지만 다 옛사람의 소리라. 오늘날 사람의 귀에는 맞지 않을까 하나이다.”

부인이 시비로 하여금 양생의 거문고를 가져오라 하여 이르되,

“아주 좋은 재목이라.”

양생이 말하되,

“이는 용문산 위 절벽에 있는 꺾어진 백 년 묵은 오동이라. 나무의 성질이 다 없어지고 단단하기가 금석 같으니 비록 천금이라도 바꾸지 못하리이다.”

이처럼 문답하되, 소저가 나오지 않으니 양생이 다급하여 부인에게 여쭙되,

[B] “빈도가 비록 옛 소리를 배웠으나 스스로 좋고 나쁨을 알지 못하더니 자청관에서 듣자오니 소저께서 매우 총명하여 곡조를 아는 것이 문희보다 나오시다 하오니 원컨대 천한 재주를 시험하여 소저의 가르침을 바라나이다.”

부인이 시비를 시켜 소저를 나오라 하니 향기로운 바람이 쾌옥 소리를 끌더니 소저가 나와 부인 곁에 모로 앉았다. 양생이 예하여 뵈고 눈을 바로 하여 보니 눈이 부시고 정신이 요란하여 가히 측량하지 못할 지경이었다. 앉은 자리가 소저와 거리가 먼 것을 꺼려 부인에게 청하여 말하되,

“빈도가 소저의 가르침을 들으려 하는데 당이 너무 넓어 자세히 듣지 못하실까 하나이다.”

부인이 시녀를 명하여 자리를 가져오라 하니 시녀가 자리를 옮겨 부인 곁에 가까이 놓았다. 소저의 앉은 곳과 멀지 아니하되 옆자리라. 도리어 앞에서 바라볼 때만 못했다. 안타깝지만 감히 다시 청하지 못하더라.

- 김만중, 「구운몽」 -

43.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양생은 정 소저가 명성이 높음을 알고 있었다.
- ② 양생은 정 소저와 만나기 위해 과거 시험을 피하고자 하였다.
- ③ 부인은 교자를 보내 거문고 타는 여자를 집으로 불러 들였다.
- ④ 부인은 정 소저가 젊은 여관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에 동의하였다.
- ⑤ 두련사는 부인이 전 노파의 이야기를 듣고 양생을 불러주기를 기대하였다.

44.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B]에서는 모두 상황을 가정하며 상대방을 회유하고 있다.
- ② [A]와 [B]에서는 모두 이상적 가치를 내세워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다.
- ③ [A]에서는 과거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B]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견하고 있다.
- ④ [A]에서는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B]에서는 환심을 사기 위해 우월한 지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A]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직접 드러내고, [B]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상대방의 행동을 유도하고 있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구운몽」은 문학적 형상화를 통해 소설적 재미와 진실성을 확보하였다. 속임수를 통한 긴장감의 유발, 애정의 상대를 직접 보고 싶어 하는 인간 본연의 욕망에 대한 진솔한 표현, 당대의 사회적 금기를 넘어서는 인물의 행동, 치밀하게 전개되는 욕망의 성취 과정과 욕망의 성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의 변화 등은 독자들에게 문학적 쾌감을 주어 널리 애독되었고 후대 문학에 영향을 주었다.

- ① 양생이 여사도의 복장으로 정 사도 집에 들어가는 부분은 긴장감을 유발한다고 할 수 있겠군.
- ② 양생이 재상가의 처자인 정 소저를 만나는 부분에서 당대의 사회적 금기를 넘어서는 행동이 드러나는군.
- ③ 양생이 두련사의 도움을 받고 전 노파를 이용해 부인에게 초대받는 부분은 욕망의 성취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④ 양생이 부인에게 귀한 거문고를 보이며 천금이라도 바꾸지 않겠다고 하는 부분에서 인간 본연의 욕망이 드러나는군.
- ⑤ 양생이 정 소저와의 만남을 이루는 과정에서 다급해 하고 정신이 요란해지고 안타까워하는 감정의 변화가 드러나는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